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⑨ 관욕 (下)



▶한줄요약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중생 위한 가피 기원하듯, 부처님 관욕이 곧 중생의 청정을 위한 발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 부처님 관욕, '중생 청정' 위한 발원

### 영가를 위한 통과의례

천도재에서 영가의 관욕은 통과의례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관욕으로 업과 번뇌를 씻은 뒤, 부처님 앞에 나아가고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욕의 절차는 영가가 생전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삼업(三業)을 정화하고 새 옷을 갈아입는 의미로 진행된다. 따라서 비밀스럽고 신묘한 성격을 지녀, 병풍을 치거나 가설공간으로 관욕단을 마련하여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관욕의 절차는 병풍 안팎에서 이원적으로 전개된다. 병풍 바깥에서는 법주 스님이 세부 절차에 따라 진언을 염송한다. 업의 정화과정을 몸 · 입 · 얼굴 등을 씻는 것에 비유하여 목욕진언 · 작양지진언(嚼楊枝眞言) · 수구진언(漱口眞言) · 세수면진언(洗手面眞言)을 읊고, 이어 새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차례로 이어간다. '작양지'란 '버드나무 가지를 씹는다'라는 뜻으로, 버드나무 가지가 이를 닦기 위해 지참하는 '비구 18물'의 하나인 데서 비롯된 말이다.

병풍 안에서는 또 다른 스님이 법주 스님의 진언에 따라 일련의 행위를 이어간다. 관욕단의 모습을 살펴보면 향탕수를 담은 대야, 비누 · 수건 · 칫솔 · 치약 등의 세면도구, 영가를 구상화한 지의(紙衣), 한 벌의 새 옷 등을 갖추어놓는다. 영가를 목욕시킨 뒤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의미를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지의를 향탕수에 살짝 적셨다가 태움으로써 업과 번뇌의 씻음을 상징하게 된다.

이때 개인의 사십구재에서도 지의는 하나가 아니라 2개를 갖추고, '남신구(男身軀) · 여신구(女身軀)'라 써둔다. 지의가 두 개인 것은 영가를 포함한 범부 · 범녀를 상징하여, 천도되지 못한 채 떠도는 모든 고혼을 함께 구제의 대상으로 삼아 관욕을 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처럼 관욕은 영가의 결정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전환점이 됨을 알 수 있다. 관욕으로 청정해진 영가는 비로소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본격적인 가르침과 가피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욕을 치르기 전의 영가가 속(俗)의 존재였다면, 관욕을 치른 뒤에는 성(聖)의 존재로서 종교적 경지가 변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때 영가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옷'이 등장한다. 법주 스님이 염송하는 의식문에는, 영가가 이전에 입었던 명부세계의 옷(冥衣)을 벗고 해탈복(解脫服)으로 갈아입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명의'와 '해탈복'이라는 두 가지 관념적 옷을 통해 존재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아울러 영가의 존재를 나타내고자 지의를 두는 것처럼, 목욕 후에 갈아입는 옷 또한 가시적인 새 옷으로 한복을 마련해놓는다. 이 옷은 봉송(奉送) 단계에서 위패와 함께 불태우게 된다. 관욕 때 지의를 태우는 것은 명의(冥衣)가 해탈복으로 변환됨을 나타내고, 봉송 때 한복을 태우는 것은 영가가 저승으로 통합되었음을 뜻하는 셈이다.



삼화사 수륙재에서 상단 관욕을 위해 불패를 모시고 성욕소로 향하는 모습.

특히 명부 옷이 새 옷으로 변했음을 알리는 '가지화의(加持化衣)' 편은, 한국불교의 의식문에만 등장하는 절차이다. 중국에서는 업을 씻고 해탈복을 갖추는 것으로 간략하게 다루었으나, 옷이 바뀌는 '화의'의 과정을 중요하게 의미화했음을 알 수 있다.

### 성현을 대상으로 한 관욕

사십구재처럼 소규모의 개인 천도재와 달리, 수륙재 · 생전예수재 등에서는 하단관욕뿐만 아니라 상단 · 중단 관욕도 이루어진다. 성현은 본래 청정한 존재인데 왜 관욕을 하는 것일까? 속(俗)의 존재를 대상으로 한 관욕이 업과 번뇌를 씻어주기 위함이라면, 성(聖)의 존재를 향한 관욕은 경배와 찬탄의 뜻을 지녔다. 부처님의 경지는 일체 상(相)을 떠났으나 방편으로 상을 두듯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도량에 강림한 부처님의 존재를 느끼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단과 중단 또한 관욕의 의미를 구분하여 위상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생전예수재 의식문을 보면, 상단관욕 '입실게(入室偈)'에 "룸비니동산에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금색 묘신으로 추함이 없었으나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냇가로 가셨으니, 이제 관불(灌佛)로써 중생을 구제함이 또한 마땅하리라" 하였다.

상단관욕이 중생에게 불보살의 존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면, 중단관욕의 목적은 이와 다르다. 수륙재 의식문의 중단관욕 '가지조욕' 편에, "…향기로운 물 준비했으니 신통력으로 밝게 비추시어 정성을 갸륵히 여겨 받아주십시오. 오염된 때를 벗겨 청량한 심신으로 번뇌를 없애소서"라 하였다. 신중은 성스러운 존재이지만 어디까지나 삼보에 귀의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이기에, 중단관욕은 명부 성중을 환영하면서 그들의 근심을 위로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불교서 관욕은 모든 존재 열려있어**
**물로써 정화한다는 보편성서 출발**
**행하는 이의 심신 정화 공덕이 커**
**관욕이 지닌 본래 의미 회복 기대**



진관사 수륙재에서 관욕단에 영가 위패를 모시고 하단 관욕을 하는 모습.

참고로 하단의 '가지조욕' 편을 보면, "지난 겁 동안 쌓인 티끌과 번뇌를 씻어내고, 여러 생 동안 지은 죄의 때를 제거해 뜨거운 번뇌도 육신의 혼침도 털어 없애소서"라 하여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지은 죄업을 씻어내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정화'라는 보편적 의미를 공유하는 가운데, 대상의 위상에 따라 관욕의 의미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예수재나 수륙재를 행할 때 상단과 중단의 관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진관사에서는 수륙재에서 상단 · 중단 관욕을 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단과 중단의 불보살을 비롯한 성중은 관욕이 특별히 필요한 존재가 아니며, 권공절차를 통해 본래의 수륙재 목적에 더 부합하려고 한 측면이 강하다"고 하였다. 이는 관욕을 하지 않는 데 대한 합당한 설명이라 하겠다.

이와 달리, 한편에서는 상단 · 중단 관욕에 대해 '중생이 부처님을 목욕시킴은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담론이 존재하고 있다. 근래 대부분 사찰에서 사용하는 예수재 의식집은 〈예수재의범〉으로, 1970년대 화응(和應) 스님이 이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정리한 책이다. 이 의식집을 1980년대 삼우(三愚) 스님이 재편집할 당시, 일부 스님들이 "어떻게 중생이 감히 부처님을 목욕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식은 생략함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15 · 16세기에 처음 편찬되었던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에서부터 1930년대에 이를 재편한 〈석문의범〉, 1970년대의 〈예수재의범〉에 들어있던 상단 · 중단 관욕이 삭제된 것은 1980년대부터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어산 스님들이 불경함을 주장하여 생략한 것이자, 의례 시간이 점차 짧아지면서 필수적이지 않은 절차에 포함되었던 셈이다.

### '중생의 정화'로 되돌아와

불교에서 관욕이란 모든 존재에게 열려있는 것이며, 그 의미 또한 물로써 정화한다는 보편성에서 출발한다. 관념적 관욕은 물론, 조성된 상이든 살아있는 존재이든 무관할뿐더러, 상단의 불보살에서부터 중단의 신중과 하단의 영가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위상에 맞게 행하는 신성한 의식이다.

의식으로서 관욕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오인스님은 〈현유경〉 · 〈마하승기율〉 등에서 성도절(成道節)에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목욕 공양을 올린 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 당시 수행자들은 야외의 숲과 나무 아래서 수행 정진하여 냉기와 습기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땔감을 마련해 물을 데워 올리는 공양 또한 큰 공덕을 지닌 것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욕승(浴僧) 공양이 후대로 오면서 초파일의 욕불로 변화되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상 · 신상은 물론, 산 자를 대상으로 한 씻김의 의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수계법회에서 스님이 업장 소멸과 성불을 축원하며 신도들의 머리에 청수로 마정수기(摩頂授記)를 행하기도 하나, 이는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이에 비해 죽음의례에서 행하는 관념적 · 밀교적 성격의 씻김의례가 발달해있다. 관념적 관욕의 경우에도 그 대상은 하단의 존재에 국한됨을 살펴보았다. 앞서 '중생이 부처님을 목욕시킬 수 없다'는 생각은, 인근 불교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욕이나 부처님오신날의 관욕과 모순된다. 이러한 관념이 싹튼 것은 역사적으로 천도재에서 상단 · 중단 관욕을 그만큼 보기 힘들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개인의 사십구재는 물론 유주무주 고혼을 위한 천도재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때의 관욕은 생전에 지은 망자의 업을 씻어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욕=영가관욕'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상단 · 중단 관욕은 사례도 드물뿐더러 그 의미 또한 영가 관욕에 구속되어 '중생이 감히 부처님의 관욕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셈이다.

**제가 이제 모든 부처님을 씻겨드리고**
**바른 지혜로 공덕이 가득한 부처님을 장엄하오니**
**오탁(五濁)에 빠진 중생들이 오염된 생각을 여의고**
**부처님처럼 청정한 법신을 증득케 하소서**

욕불을 할 때 발원하는 '욕불게(浴佛偈)'이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중생을 위한 가피를 기원하듯, 부처님의 관욕이 곧 중생의 청정을 위한 발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중단 · 하단 관욕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관욕은 씻어줌으로써 대상에게 공덕을 베푸는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욕불게〉처럼 행하는 이의 심신을 정화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가 관욕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관욕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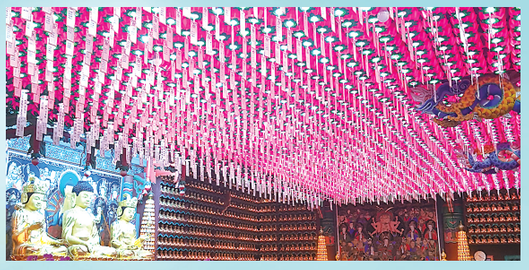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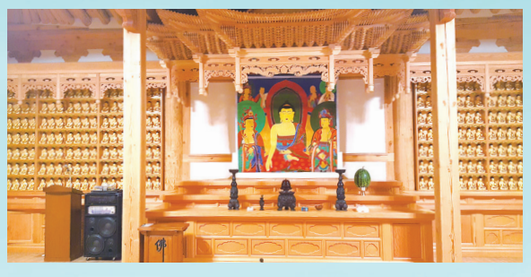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